

요 약

- ▶ 본 연구는 건설산업 활동의 국가경제 파급효과 즉,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.
 - 건설투자에 따른 건설산업 활동의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,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중 건설관련사업의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창출효과를 분석
- ▶ 2005년도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제조업보다 낮으나 서비스업 및 전 산업 평균보다 높음.
 - 반면,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서비스업보다는 낮으나 제조업 및 전 산업 평균보다 높음.
 - 부가가치유발계수 중 임금소득유발계수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부문 중에서 가장 높음.
 - 수입유발계수는 서비스업보다는 높으나 제조업의 절반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음.
- ▶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시계열적으로 여타산업 부문보다는 저하되는 속도가 현저히 낮음.
 - 2005년도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보다는 낮으나 제조업보다 높고 전 산업 평균보다도 높음.
 - 한편, 임금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발계수는 건설산업이 오히려 서비스업보다 더 높게 나타남.
- ▶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중 건설관련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66조원, 취업유발인원은 50만2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.
 - 취업유발인원 중 직업별로는 기능 및 기계장비공의 일자리가 23만6천명, 학력별로는 고졸자 일자리가 24만2천명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
- ▶ 건설산업이 거의 모든 측면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제조업적 속성과 서비스업적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임.
 - 건설산업은 제조업적 속성으로 인하여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한편, 서비스업적 속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특징을 보임.
 -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, 경기침체시 건설산업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방안은 여전히 실효성이 높은 정책 수단으로 판단됨.